



칼빈의 世界觀, 人間觀과 改革主義 教育觀

—教育目的, 教師—學生觀을 中心으로—

金 龍 燮*

◇ 目 次 ◇

- I. 序 論
 - I-1. 問題의 提起
 - I-2. 研究의 目的과 課題
 - I-3. 研究의 範圍와 限界
- II. 칼빈의 世界觀과 人間觀
 - II-1. 칼빈 思想의 出發點
 - II-2. 칼빈의 世界觀(實在論)
 - II-3. 칼빈의 人間觀
- III. 改革主義 教育觀
 - III-1. 教育觀—教育의 目的
 - III-2. 教師觀
 - III-3. 學生觀
- IV. 結 語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I. 序 論

I-1. 問題의 提起

칼빈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偉大한 宗教改革者로서, 그리고 卓越한 神學者로서 名聲을 떨친 歷史의 人物이다. 遺憾스러운 것은 너무나도 떨쳤던 宗教改革者로서의, 神學者로서의 名聲에 가리워 教育家로서의 그의 地位와 役割이 별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神學者로

*教授



I-3. 研究의 範圍와 限界

위에서言及했듯이, 본 研究는 그 範圍와 限界性을 처음부터 前提로 하고 出發한다. 칼빈은 무엇보다도 먼저 宗教改革者이고 神學者이다. 그의 이름이 붙은 어떠한 領域에 대한 研究를 深度있게 하려면 그에 의해 成就된 宗教改革의 歷史的 業績이나 그의 神學思想의 概要에 대한 考察이 先行되어야 할 當爲性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본 研究는 이러한 廣大한 分野에 대한 探求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言及했듯이, 그와 그의 追從者들의 教育觀의 基礎가 되는 世界觀, 人間觀에 대한 概略的인 論議와, 이에 立脚한 그들의 教育觀으로서 教育의 目的과, 教育을 擔當하고, 받는 教師와 學生에 대한 考察에 우리의 研究의 境界를 設定하였다. 여기 留意할 것은, 論議展開에 있어서 우리는 始終 칼빈과 칼빈학자들에 의해 表明된 聖經의 原理를 우리의 基本的 立脚地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II. 칼빈의 世界觀과 人間觀

II-1. 칼빈思想의 出發點

칼빈의 思想은 매우 包括的이다. Calvinism이라고 하는 代名詞는 神學的인 問題에 대해서 뿐 아니라, 社會, 經濟 및 政治領域에도 두루 適用되는 思想體系를 나타낸다. 宗教改革者로서, 改新教 神學者로서, 그리고 包括性있는 思想家로서 칼빈만큼 學問一般과 文化의 諸 領域에 깊은 影響을 끼친 사람은 드물다. 그의 思想體系는 著名한 學者들에 의해 哲學의 基本的인 체계라고 評價되고 있기도 하다(Meeter, 1960, p 30).

Calvinism의 出發點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相當한 論議가 있어 왔다. McNeil(John T)과 같은 칼빈學者는 그 어떠한 主題를 칼빈思想의 支配的인 教義로 여긴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보았는바, 그것은 칼빈은 어떠한 基本的인 原理도 그의 思想體系의 形成에 一貫性있게 적용한바 없고, 다만 聖經을 해석하고, 聖經의 原理를 唯一한 原理로 活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McNeil, 1954, p 201-203).

한편, 다른 칼빈主義者들, 특히 Warfield(B B)와 같은 學者는 칼빈이 意圖的으로 自身의 사상의 中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Calvinism의 出發點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He takes his start, of course from God, knowledge of whom and obedience to whom he declares the sum of human race"(Warfield, 1956, p 23)

칼빈의 著書를 보면 이러한 그의 立場이 더욱 分明히 表現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基督敎綱要는 하나님께 대한 知識에 관한 論議로 始作되고 있고(Calvin, 1967, p 35), 하나님께 대한 概念은 그의 모든 問題들에 대한 論議에 있어서 언제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Catechism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첫 質問과 이에 대한 答은 이러한 그의 立場을 더욱 明白하게

해 주고 있다: “Question What is the chief end of human life?”

Answer To know God by whom men were created”(Calvin, 1958, p 37)

이렇게 해서 出發한 칼빈의 思想體系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主權思想”과 “人間的 全的墮落”이라고 하는 原理를 根幹으로 하여 形成되었다. 칼빈은 그의 思想을 哲學的인 관점에서 보다는 神學的인 입장에서 展開하였다. 따라서 그의 思想體系에서 哲學的인 어떠한 問題들이나 教育의 어떠한 特殊 關心事에 대한 直接的이고 體系의인 解答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基督教綱要와 같은 著書를 통해서 우리는 教育의 根源的인 主要 領域들에 意味를 賦與해 주는 몇 몇 哲學的인 問題들에 대한 칼빈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칼빈에 의해 提示된 여러 問題들에 대한 解明中 그의 世界觀(그의 實在에 관한 論議에서 밝혀진)과 人間觀에 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무릇, 모든 教育觀과 教育行爲, 過程의 本質的인 形態는 반드시 어떠한 世界觀과 人間觀의 哲學的인 根據위에서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에 의해 表明된 世界觀과 人間觀은 칼빈 自身の 教育에 대한 基本的인 立場은 勿論, 그의 信仰的인 思想的인 土臺위에 形成된 改革主義라고도 일컬어지는 칼빈主義 學者들의 教育觀과 이에서 비롯되는 教育行爲나 過程의 哲學的인 根據가 되는 것이다.

II-2. 칼빈의 世界觀(實在論)

칼빈의 世界觀을 이루고 있는 實在에 대한 論議는 그의 全 思想體系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知識의 土臺위에서 展開되고 있음은 勿論이다. 칼빈에 있어서 窮局的인 實在은 人間의 有限한 知力으로는 理解할 수 없는(incomprehensible, Calvin 1967, p 61), 永遠 自存하며(Ibid p 66), 三位이면서 分離할 수 없는 하나의 本質로 實存하시는(Ibid. p 138) 主權者 하나님이시다(Ibid. p 182). 聖經에 列舉되어 있는 하나님의 穩全하신 屬性은 人間과의 關係에서 그가 人間에게 作用하시는 意味에 있어서의 것이치 人間과의 關係를 떠난 것은 아니다(Ibid p 98). 하나님의 屬性은 어디 까지나 人間과의 關係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人間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屬性은 사랑(kindness)과 善하심(goodness)과 慈悲(mercy)와 義로우심(justice)과 審判(judgment)과 眞實하심(truth)이다(Ibid. p 98). 이 중에서도 人間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屬性은 慈悲와 審判과 義라는 것을 力說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Certainly these three things are especially necessary for us to know Mercy, on which alone the salvation of us all rests, Judgment, which is daily exercised against wrong doers, and in even greater severity awaits them to their everlasting ruin, justice whereby believers are preserved and are most tenderly nourished’(Ibid. p 98)

하나님은 世界를 創造하신 創造主이시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無에서 創造되었고, 따라서 被造世界는 하나님의 無限하심과는 달리 有限(temporal)하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the world was made out of nothing Hence the folly of those is refuted who imagine that un-



formed matter existed from eternity…… Let this, then, be maintained in the first place, that the world is not eternal, but was created by God”(Calvin, 1948, p 70)

칼빈에 의하면, 世上萬物은 하나님에 의해 創造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依存해서 계속 存在한다. 칼빈은 自身の 이러한 見解를 이렇게 밝힌다. :

“To uphold or to bear here means to preserve or to continue all that is created in its own state, for he intimates that all things would instantly come to nothing, were they not sustained by his power”(Calvin, 1949, p 37)

칼빈에 있어서 그 무엇이 存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保存하시기 때문이다. 즉, 모든 實在하는 것의 存在論의 根據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創造하시고 保存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觀念論的 表象이 아니라 實體이다. 그러나 이 때 留意해야 할 것은 이 실체는 獨立自存(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創造되어 하나님에게 그 根源과 存續을 全的으로 힘입고 있는 그러한 實體라는 事實이다. 칼빈의 이러한 有神論的 實在論을 가리켜 Byrne(H W)은 “依存的 二元論(contingent dualism)”이라고 부르고 있다 (Byrne, 1961, p 46) Spier(J M)도 다음 말에서 Byrne과 같은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

“Calvinistic philosophy displays its absolute Christian starting point by maintaining the basic Biblical distinction between God and the cosmos God is the almighty creator and sustainer of all things The cosmos is the whole of creation, absolutely dependent upon its maker”(Spier, 1953, p 23)

한편, 이러한 性格의 칼빈의 實在論에 대해 Bavinck(Herman)는 有神論的 一元論(theistic monism)이라고 指稱하고 있다. Bavinck는 칼빈의 實在論에 내포된 二元論的인 性格을 是認하면서도, 이러한 神-세계의 二元的 隔離은 하나님의 創造의 意志속에서 좁혀져 하나로 융합한 것으로 보았다(Bavinck, discussed in Jaarsma, 1935, p 57-70)

하나님의 創造役事는 무엇보다도 人間의 창조에 의해 절정을 이룬다. 하나님은 天地萬物을 지으시고 난 뒤에 人間을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모든 被造世界를 征服하고 支配하게 하셨던 것이다(창1 : 26, 28). 그리하여 人間은 하나님의 모든 創造의 면류관으로서 文化를 創造하고 營爲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特權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II-3. 칼빈의 人間觀

칼빈의 人間觀은 人間에 대한 그의 二元論的 見解의 바탕위에 成立되어 있다. 칼빈은 人間이 두개의 部分 즉, 하늘의 魂(a heavenly soul)과 땅의 肉體(an earthly body)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고(Calvin, 1967, Vol I, p 184), 前者는 人間存在의 낮은 部分이요 惡의 源泉(the lower part of man and the source of evil)인 後者안에 갇혀있는(imprisoned) 것으로 생각했다. 칼빈에 의하면 魂은 不滅的인 것이긴 하나 被造된 것이요, 人間의 보다 더 尊貴한 部分(an immortal yet created essence, which is his nobler part)으로서, 때로는 靈(spirit)이라



고도 불리워지며(Ibid, p 184), 肉體안에 깃들어 있는 無形的 存在(incorporeal being)로서 이는 前者가 後者안에 居處(housed in the latter)하고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한다(Ibid, p 192, Van der Walt, B J, 1978, p 237) 그리하여 肉體안에 깃들어 있는 魂이 現世의 魂의 쇠사에서 自由로와 지려면 地上의 肉의 生은 否定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칼빈에 의하면 人間은 하늘의 生을 冥想하도록 지어졌고(Ibid), 그리하여 그가 萬若 이러한 生의 本來의 目的을 달성하려면 地上의 肉의 生活은 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칼빈의 人間論의 첫 關心은 하나님의 形象대로(in the image of God) 지음받은 存在로서의 人間의 本質에 관한 問題에 傾注되고 있다.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形象대로”란 말을 人間을 다른 動物들과 區別하는 人間의 모든 本質의 特性들을 意味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形象이란 말을 그가 생각하는 대로의 創造時의 아담의 狀態라는 意味와, 아직도 人間에게 남아 있는 비뚤어진 아담의 殘影(이를 통해서 人間이 하나님과의 關係를 追求하는)이라고 하는 意味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榮光의 자취가 人間의 肉體에나 自然世界의 一部領域에도 비치고 있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形象이 座定해 있는 場所는 魂(精神, 마음)이라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自身의 見解를 披歷하고 있다 :

“And although the primary seat of the divine image was in the mind and heart, or in the soul and its powers, yet there was no part of man, not even the body itself, in which some sparks did not glow It is sure that even in several parts of the world some traces of God's glory shine”(Calvin, 1967, Vol I, -p 188)

그런데 아담의 創造時 그에게 賦與되었던 하나님의 形象은 그의 타락으로 심하게 毀損되었는 바,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를 慨歎한다 :

“There is no doubt that Adam, when he fell from his state, was by this defection alienated from God Therefore, even though we grant that God's image was not totally annihilated and destroyed in him, yet it was so corrupted that whatever remains is frightful deformity”(Ibid, p 189)

칼빈에 의하면 人間의 魂은 理解(understanding)와 意志(will)의 두 機能으로 構成되어 있다 한다(Ibid, p 194). 前者는 認定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들이나 認定할 만한 價値가 없는 것들(those objects which are worthy of approval or disapproval)을 分揀하는 機能인바 이는 곧 人間의 理性을 가르킨다. 그리고 後者는 前者가 分揀한 것들을 選擇하고 따르는 機能 즉, 意志를 가르킨다. 이에 대한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

“God provided man's soul with a mind, by which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right from wrong, and with the light of reason as guide, to distinguish what should be followed from what should be avoided”(Ibid, p 195)

이리하여 아담은 創造時에 正과 邪, 善과 惡, 義와 不義를 분간할 수 있는 理性과 아울러 이에 따라 自意로 선택하고 實行할 수 있는 意志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意志의 自由로운 行使에 있어서 善과 義를 선택하지 않고 惡과 不義를 선택하여



따랐던 것이다. 물론 아담은 自意에 따라 自身の 意志를 이와는 다르게 行使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담은 創造時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本然의 義의 狀態에서 타락하고 말았는 바, 이것이 곧 칼빈의 人間性 描寫에 示唆된 罪의 起源인 것이다(Ibid, p 183-196) 이와 같이 모든 罪의 기원을 人間の 自由意志의 그릇된 行使에 돌리고 있는 것이 聖經의 가르침이요, 칼빈의 見解이다. 이러한 自由意志의 濫用으로 비롯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不信과 不順從에 基因한다고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It is already clear that disobedience was the beginning of the Fall and unfaithfulness was the root of the Fall”(Ibid, p 245)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담이 自身을 하나님과 同等한 位置에 놓고 하나님의 權威에 抗拒했음을 들어 그의 背逆(apostasy)을 糾彈하고(“Therefore, Adam carried away by the devil’s blasphemies, as far as he was able, extinguished the whole glory of God”)(Ibid, p 246), 繼續해서 이러한 罪는 아담의 後裔에게 까지 이어져 내려 갔음을 밝혀 相續的 腐敗라는 意味의 人類의 原罪觀을 披歷한다(“This is the inherited corruption, which the church fathers termed ‘original sin’”)(Ibid) 칼빈은 自身の 이러한 人類의 原罪說의 근거로서 에베소 三章三節(“……本質上 震怒의 子女이었다니”)를 提示한다. 칼빈은 萬若 人間이 태어나기 전부터 罪의 詛呪아래(under the curse of sin) 있지 않았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 “Adam so corrupted himself that infection spread from him to all descendants”(Ibid, p 249)라고 宣言한 다음, 原罪를 定義하여 “a hereditary depravity and corruption of our nature, diffused into all parts of the soul, which first makes us liable to God’s wrath, then also brings forth in us those works which Scripture calls ‘works of flesh’(Gal 5 19)”(Ibid, p.251)라고 말한다. 罪의 열매들(the fruits of sin)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들 肉體의 일들(the works of flesh)은 갈5: 19-21에 列擧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리하여 人間은 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罪의 죄사슬에 얽매어 있고, 자라서 성숙함에 따라 이 罪의 影響은 蓄積되어만 가는 것이다.

이 罪로 말미암아 人間은 自由意志를 상실했고 罪의 奴隸가 되고 말았다고 칼빈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We are all sinners by nature, therefore, we are held under the yoke of sin Hence the will of man is not free, but bound by sin’(Ibid, p 288). 칼빈은 이렇게 喪失된 自由意志는 靈(spirit)에 따르지 않는 한 自由로울 수 없다고 하는 事實을 Augustine의 말들을 引用하여 確認한다.* (Ibid, p 265). 칼빈은 고후3: 17을 들어 自由(意志)의 根據를 이렇게 밝힌다. : “For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Ibid)

人間能力의 源泉인 自由意志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理解할 수 있고 判斷할 수 있게

* “Without the Spirit man’s will is not free · · · when the will is conquered by the vice into which it had fallen, human nature began to lose its freedom· · · · ·man using his will badly has lost both himself and his will Again the free will has been so enslaved that it can have no power for righteousness Again what God’s grace has not freed will not be free”(Augustine, *On the Predestination of the Saints* III 7 IV 8 as quoted in Calvin, Ibid, p 265)

해 주는 “그 무엇”이 남아 있다(“…… something of understanding and judgment remains as a residue along with the will”)(Ibid. p 270) 칼빈은 이 “그 무엇”을 理性이라고 부르고, 理性은 人間으로 하여금 善과 惡을 理解하여 分辨하고, 이에 따라 判斷할 수 있게 해 주는 天賦의 機能으로서 이는 人間の 타락에도 不拘하고 完全히 消滅된 것이 아니라, 部分的으로 弱화되고 部分的으로 腐敗해 있는 상태로 그 變質된 殘影은 아직도 人間에게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Ibid. p 270). 칼빈은 決斷을 내릴 수 있는 人間理性의 能力과 社會를 法的 原理와 政治의 秩序에 따라 保存할 수 있는 人間の 性向과, 그리고 學問과 藝術과 科學에 從事할 수 있는 機能들을 認定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普遍的인 人間の 能力과 性向과 機能속에서 役事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恩惠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 :

“this is ample proof that in the arrangement of this life no man is without the light of reason
 …… so universal is this good that every man ought to recognize for himself in the peculiar
 grace of God (Ibid. p 273)

칼빈은 이러한 모든 人間の 天賦의인 資質들을 “땅위의 것들(terrestrial)”의 차원에 놓고 이들은 人間本性의 基本問題에 있어 별로 중요한 局面이 아니라고 본다. 칼빈에 의하면, 人間本性의 基本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資質이 있다면 그것은 靈的 知慧(spiritual wisdom)인바, 이 영적 지혜를 떠나서는 잡된 知識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Ibid. p 277) 知識이 하나님의 은혜와 啓示를 통해 오지 않는 한 人間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靈이 照明치 않는 한, 肉은 하나님을 아는 尊貴한 知慧를 얻을 수 없다.”(Ibid. p 278)고 칼빈은 宣言한다. 칼빈은 이러한 自身の 見解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전2:14을 引用한다. 肉의 사람은 하나님의 靈의 神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이 神秘는 人間の 洞察力이 미치지 않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靈의 啓示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罪의 拘束下에 있는 인간본성은 恒常 罪를 범할 수밖에 없는 性向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犯罪는 無知나 計劃的인 惡意에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은 意圖에서도 저질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犯罪行爲는 우리의 그릇된 理性作用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Our reason is overwhelmed by so many forces of deceptions, is subject to so many errors, dashes against so many obstacles, is caught in so many difficulties, that it is far from directing us aright”(Ibid. p 284)

{그러므로 人間은 日常生活에서 바른 決斷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不斷한 引導하심과 도우심을 切實히 必要로 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善을 行하려는 마음은 人間性 自體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重生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타락한 本性)에게서 일어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善할 수 없다고 한다. 칼빈은 요한복음 三章三節을 引用하여 重生을 強調한다. 이 重生은 肉의 重生이나 靈의 部分的 重生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靈魂 全體가 새로와짐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重生만이 人間에게 自由意志를 바르게 行使할 수 있게 해 주며 靈이 重生하지 않는 한 人間の 意志는 靈의 問題에 있어 自意로 行使되지 못한다. 人間意志가 그의 靈魂을 위해 作用할 수 있

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絕對主權을 全적으로, 그리고 謙遜하게 받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의 人間論은 그 思想體系의 核心인 하나님主權思想과 마주친다. 칼빈은 世界歷史나 生存自體를 포함한 人間萬事는 하나님의 主權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確信하고 있다. 人間の 全적 墮落을 주장하면서도 칼빈은 人間(性)에게 世上문화를 강조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認定하는데, 이러한 文化的 力量은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人間이 意志의 自由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제한된 인간의 自由意志는 生의 營爲過程에서 하나님의 主權에 부단히 不順從하고 거역하면서 道德的, 靈的 規範에 순응치 않음으로써 빛을 잃고 있다. 칼빈에 있어서 人間の 意志의 사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制限된 것이고, 어느 意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人間の 關係나 반응을 示唆하는 記述概念 (descriptive concept)에 불과하다. 人間の 하나님께 대한 관계나 반응 여하에 따라, 즉, 人間の 自由意志의 行使方向에 따라, 하나님이 人間에게 맺어주시 約束은 破滅이 될 수도 있고, 祝福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聖經에 나타난 하나님의 約束은, 칼빈이 믿는 바에 의하면 二重의 性格을 띠고 있다(Ibid, p 327-328) 이 約束은 불순종하고 拒逆하는 자들에게는 公義의 하나님이 내리는 破滅의 審判이 되는 것이다. 한편, 主權者이신 하나님께 順從하는 敬虔한 자들에게는 이 約束은 하나님의 祝福과 激勵이 되는 것이다. 人間の 自由意志는 義로운 자들에 의해 의롭게 行使될 때에는 하나님의 約束에 의해 強化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效율적으로 祈求할 수 있는 힘이 된다. “人間の 自由意志가 義를 추구하는 欲求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의 심정도 더욱 더 뜨거워 진다.”고 칼빈은 宣稱한다. (Ibid, p 328)

人間の 本性이나 意志에 대한 칼빈의 見解는 그의 豫定論과 함께 일부 自由主義系統의 學者들에 의해 “宿命論(fatalism)”이라고 規定지워지기도 했는 바, 그것은 그의 思想에 있어서 人間の 本性이나 意志나 역량 등이 하나님의 主權앞에서 극히 縮小되었거나 否定되었다고 하는 근거에서이다. 그러나 칼빈은 自身の 敎義가 示唆하는 바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自身の 立場에 대한 이러한 評價를 拒否하고, 오히려 人間の 要素도 하나님 앞에서 認定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 “Therefore, although we give the primary part to God’s grace, yet those expressions indicate that our effort holds second place”(Ibid, p 333)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볼 때 우리는 그의 敎義가 人間の 自由意志나 力量을, 그것들이 비뚤러지게 行使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全적으로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To Man’s natural faculties we refer the acts of approving and rejecting, willing and not willing, striving and resisting …… That is, approving vanity and rejecting perfect good, willing evil and not willing good, striving toward wickedness and resisting righteousness”(Ibid, p 334)

人間意志의 이러한 그릇된 行使에 하나님은 傍觀치 않고 간섭하신다. “If He wills to utilize such depravity as the instrument of His wrath, He directs and disposes man’s corrupt hand.”(Ibid) 여기에 示唆된 것은 하나님은 人間の 意志나 力量을 사용하여 人間과 함께 작용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協同은 惡人에 대해서뿐 아니라 善人에게도 적용된

다. “What about good man ……?” 이 質問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답한다 :

“When the Lord establishes His kingdom in them, He restrains their will by His Spirit that it may not according to its natural inclination be dragged to and fro by wandering lusts, that the will may be disposed to holiness and righteousness He bends shapes, forms, and directs it to the rule of his righteousness that it may not totter and fall, He steadies and strengthens it by the power of His Spirit”(Ibid)

칼빈은 意志의 源泉인 人間의 本性和 개인의 生과 行爲를 지배하는 本質的 요소요, 인간의 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恩惠를 모두 強調한다. 그리하여 칼빈은 Augustine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結論짓는다. : ‘To will is of nature, but to will aright is of grace’*(Ibid . -p 335)

칼빈의 人間論은 여러 角度에서 特徵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宇宙와 人類의 創造主이시고 統治者이신 하나님의 絶對主權을 지극히 강조하는 한편, 태어날때 부터 罪를 이어받은 아담의 後裔인 인간의 墮落한 狀態를 여실히 描寫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審判下에 있는 人間의 本性이나 역량만으로는 그의 生存自體는 물론, 모든 人間事에 希望이 없다고 하는 견해에 비추어 칼빈의 人間論은 分明히 悲觀論의인 것이라 할 수 있다. 自由意志와 生得的 機能들을 부여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人間の 意志나 기능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없이는 불의와 悲劇아니고는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의 教義는 이렇게 볼 때 悲觀論이요 일종의 宿命論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그의 人間論(그의 思想全體는 勿論)은 이른바 悲觀論의이라고 규정되는 바로 그 점에서 樂觀論이라 할 수 있다는 事實이다. 칼빈의 人間論은 바로 그의 全 思想體系가 그러하듯, 人間이 永遠한 罪의 詛呪下에 審判받아서 안되고, 하나님의 恩惠로 구원받아 創造의 면류관으로서의 과업을 成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切迫한 希望과 前提위에 성립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同事者로서 人間の 自由意志와 역량의 행사에 간섭치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한 저주의 終着点을 향해 달려갈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唯一한 길이라면 人間에게는 전혀 希望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人間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靈으로 人間の 生과 모든 일에 언제나 간섭하여 그를 義와 救援의 길로 引導하신다고 한다. 人間の 本性和 生得的 機能들은 하나님의 恩惠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世上에서 그에게 맡기신 과업을 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人間の 文化創造와 營爲를 가능케 하는 契機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慈悲가 役事하는 이 契機가 바로 教育을 包含한 모든 人間企業의 可能根據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人間觀은 教育의 可能根據를 하나님의 主權의 能力에 의한 救贖의 恩惠라고 하는 大前提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Augustine *Sermons* Clvi 9 9, 11 11-12 as cited in Calvin Ibid p 335

Ⅲ. 改革主義 教育觀

칼빈의 많은 著作活動中 教育의 問題에 대해 體系的으로 叙述한 著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廣大한 思想體系에서 教育의 諸 關心事에 대해 直接, 間接으로 表現된 言及을 통해서 教育의 主된 問題들에 대한 그의 見解를 把握하거나 推論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더우기 칼빈의 包括的인 思想體系는 그의 立場을 따르는 後世 學者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解釋되고 發展되었던 바, 특히 教育의 領域에 있어서 칼빈에 의해 表明된 基本原理들은 많은 學者들에게 自身들의 教育(學)의 哲學的 指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몇몇 著書들 속에서 示唆된 內容을 통해서 칼빈의 教育에 대한 基本的 見解를 살펴보고, 이러한 立場을 따르는 後世 學者들에 의해 적용되고 解釋되고 發展된 教育思想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Ⅲ-1. 教育觀—教育의 目的

人間이 營爲하는 모든 企業이나 行動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면 人間에 의해 營爲되는 이들 企業이나 行動의 目的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答을 구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目的에 대한 바른 自覺없이 人間에 의해 遂行되는 일들은 그 방향에 混亂이 惹起될 것이요, 여기서 만족스러운 성과란 期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教育에 대한 論議에 있어서도 가장 根本的인 課題는 教育이 成就해야 할 目的이 本質的으로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問題는 우리의 世界觀, 人間觀과 直接的으로 連結되어 있고, 이에 대한 答은 우리의 教育行爲나 內容을 決定하게 되는 것이다.

基督者는 教育을 包含한 모든 企業이나 行爲의 目的, 아니 그가 누리는 生 自體의 窮局的인 目的을 하나님께 대한 榮光에 두고 있다. “사람의 첫째되는 目的은 하나님을 榮華롭게 하고 그를 永遠히 즐거워 하는 것이니라.”(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 第一問에 대한 答)고 하는 信仰告白의 土臺위에서 生과 모든 企業을 營爲하는 것이 基督者인 것이다. 칼빈도 이러한 基本的인 信仰立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이러한 信仰告白의 土臺위에서 그의 全 思想과 生을 評쳤던 것이다 :

“Master—What is the chief end of human life?”

Scholar—To know God by whom men were created

Master—What reason have you for saying this?

Scholar—Because He created us and placed us in this world to be glorified in us And it is indeed right that our life, of which Himself is the beginning, should be devoted to His glory

Master—What is the highest good of man?

Scholar—The very same thing”(Calvin,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p 37)



위에 밝힌 信仰立場은 극히 包括的인 칼빈思想의 根原의 原理인 바, 이는 또한 그의 教育에 대한 窮局的인 目的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Geneva大學의 教育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確認된다(Calvin, 1955, p 22-23). 예컨대, Geneva大學의 教授와 理事의 就任宣誓에는 이러한 內容이 들어 있다 :

"I also promise to see as far as I possibly can (as I hope God will give me grace), that the scholars shall live peacefully, in all modesty and honesty, to glory of God and the profit and repose of the city"(Ibid, p 33)

칼빈에 있어서는 宗教教育뿐 아니라 世俗教育도 그 目的은 하나님의 榮光을 實現함에 歸結됨을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되는 바이다. 이러한 教育의 目的은 칼빈主義 教育學者인 Waterink(Jan)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백히 陳述되고 있다 :

"The forming of man into an independent personality serving God according to his word, able and willing to employ all his God-given talents to the honor of God and for the well-being of his fellow-creatures in every area of life in which man is placed by God"(Waterink, 1954, p 41)

이리하여 教育의 窮局目的인 하나님의 榮光實現은 兒童學生에게 單純히 情報, 知識을 注入시키거나, 身體器官의 効率的인 操作機能을 熟達시켜 주거나, 環境에 대한 外的 適應性을 培養시켜 주는 등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實現시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教育行爲나 過程은 兒童學生들을 全人으로서 성숙시켜 그의 全存在로 하여금 生의 모든 領域에서 自身の 모든 재능을 動員하여 人類的 福祉에 寄與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榮光돌리게 하는 것을 窮局的인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主義的인 目的은 生의 過去에도, 現在에도, 그리고 未來에도 適用된다. 이는 과거-文化遺産-에도, 現在-오늘의 필요와 요구-에도, 그리고 未來-하나님이 각 個人을 불러 맡기신 事役에의 準備-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生의 原理요, 教育을 包含한 모든 人間企業의 原理인 것이다. 극히 包括的인 이러한 教育의 目的은 個人이 營爲하는 生의 全 領域에 있어서의 그의 全人에게 적용된다. 즉, 이는 兒童學生의 全 潛在力-精神的, 肉體的, 文化的, 職業的, 靈的-을 最大限으로 開發, 訓練하여 그로 하여금 유능한 人間(人格者)으로 발달케 함을 의미한다. 兒童의 精神的 生은 그로 하여금 오랜 世代에 걸쳐 蓄積된 知慧와 自然에 의미있는 접촉을 갖게 하여 그에게 신리의 探究心과 美의 創造意慾을 鼓吹하여 眞理와 美를 實現케 하고, 그로 하여금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함으로써 成就된다. 肉體的 生은 學生에게 健全한 物理的, 心理的, 社會的 生活에 必要한 機能과 習慣을 개발, 增進하여 實生活化시킴으로써 발달된다. 文化的 生은 學生안에 있는 文化遺産에 대한 吟味機能을 開發하고, 그로 하여금 이러한 文化遺産을 높은 차원으로 昇華시켜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探索하고 研磨케 함으로써 발달된다. 兒童學生의 職業的 潛在力은 그에게서 當代的 社會共同體를 構成하고 維持, 發展시키는 一員으로서의 責任이 부과된 地位와 役割에 必要한 素質과 才能을 발견하고 이를 鍊鍛, 增進하여 人용화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줌으로써 발달된다. 그리고, 兒童의 靈的



潛在力과 이에 의해 營爲되는 敬虔한 生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적 奉獻心을 길러 주고 이러한 奉獻심에 涵養된 原理들이 實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適用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이를 自身の 生의 全 現實에 구현케 함으로써 증진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칼빈主義의, 아니 聖經原理에 있어서의 이러한 과업은 모든 教育(行爲, 過程)의 出發點이어야 하고, 동시에 歸結點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Ⅲ-2. 教師觀

教育의 目的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던지 간에 學校나 社會 등 教育을 맡은 기관에서 教師에 의해 달성된다. 아무리 훌륭한 教育의 목적이나 이를 실현키 위한 효율적인 教育政策이나 方案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바르게 認識하고 이를 구현코자 獻身하는 教師의 역할없이는 그 어떠한 결실도 거둘수 없는 것이다. 教師는 教育現場에서 被教育者인 兒童學生들에게 설정된 목적을 실현키 위해 마련된 教育의 課程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精神的, 肉體的, 社會的 및 靈的 資質을 개발하고, 訓練하고, 增進시켜 全人으로서의 그들을 유능하고 원숙한 人格者로 養育할 책임을 진 자이다. 따라서 教育의 樣相이나 成果는 그 教育을 맡은 教師의 자질이나 使命感이나 職務遂行의 效率性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教師職은 本質的으로 어떠한 것이고, 이 職責은 어떻게 遂行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칼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칼빈의 信仰과 學問的 立場을 追從하는 學者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한가지 전제하고 들어갈 것은 칼빈은 教師職을 무엇보다도 眞理를 타인에게 전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理解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教師職은 좁은 의미의 專門的인 教師에게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眞理傳達者 일반에게도 적용되는 職責임을 유의해야 한다.

教師는 무엇보다도 眞理를 전하는 자이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眞理를 전하는 責任을 맡은 教師職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 職責은 하나님의 나라를 鞏固히 하고 擴張해 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職責이다. 이는 칼빈에 의해 교사직이 教會의 福祉를 위해 필요한 職責中的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반영되어 있다. 비록 宗教教師에게 보다 높은 位置가 부여되고 있긴 하나 教師職의 聖職者的인 特性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世俗學科擔當者로 여겨지는 교사에게 까지도 적용되 있음을 우리는 칼빈의 다음 말에서 알 수 있다.

“The order nearest to the ministry and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is that of lecturer in theology, in which office it shall be well to include the teaching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But it is impossible to profit by such instruction without first being instructed in languages and in humanities and also since there is need to raise up seed against the future in order that the Church may not be neglected by the young,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chool to instruct the children to prepare them not only for the ministry but for the civil government” (Calvin, 1953 p 14-15)

眞理의 恒久性은 곧 教師職의 恒久(存)性을 의미한다. 教師職은 그 어떠한 發明이나 改革에 의해서도 대치될 수 없다. 教師의 職責은 人間의 生의 構造속에 舍入되어 生과 함께 존속한다. 세상의 어떠한 직업은 새로운 知識이 發見되고 技術이 진보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教師라고 하는 職業은 과거에도 필요했고, 現在에도 필요하고, 또한 미래에도 역시 필요할 것임에 틀림없다. 教師는 世界가 存在하고 人間社會가 존속하는 한, 그 어떠한 科學, 技術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人間社會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인 것이다.

칼빈主義的인 입장에서 볼 때, 教師는 자신의 職責을 聖經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자각해야 한다. 基督教教師는 자신의 職責을 하나님에 맡기신 天職(God's calling)으로 알고 이에 합당하도록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12:5-7)에서 教師職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肢體에 比喩하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4:11)에서는 教師職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수여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Byrne(H W)은 基督者는 교사를 하나님의 證人이요 使者로 본다고 言明한다(The Christian sees him (teacher) as a witness, an oracle of God-Byrne, 1977, p 121) 教師職이 갖는 이러한 重要性에 비추어 칼빈은 Geneva大學의 學長(the Rector)의 就任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宣誓를 할 것을 義務化했고: “I promise and swear loyally to fulfill my duty to the performance of which I trust that I have been called by God who will give me grace”(Calvin, 1955, p 33). 또한 教授와 理事의 취임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宣誓를 하도록 義務화했던 것이다: “I also promise to see, as far as I possibly can (as I hope God will give me grace), that the scholars shall live peacefully, in all modesty and honesty, to glory of God and the profit and repose of the city”(Calvin, Ibid) 이러한 중요한 職責을 맡은 教師는 자신의 책임의 尊嚴性에 눈을 뜨고, 人間能力의 한계에 警覺하여 언제나 검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役割遂行에 최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賦與해 주신 教師職은 權威의 表象이다. 주님은 昇天時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權勢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弟子를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聖靈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20)고 명령했다. 이로부터 眞理를 전달하는 教師의 職은 바로 주님의 權威로 위임된 지위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진리의 根源은 三位一體 하나님이고 모든 權威의 根源도 하나님인 것이다(롬13:1). 따라서 이 眞理를 전하는 자의 權威는 派生的權威(derivative authority)이다. 즉, 가르치는 권위의 원천은 교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따라서 教師의 權威는 위임된 권위(delegated authority)인 것이다. 그러므로 教師는 가르침의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 언제나 그 權威의 賦與者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教師는 하나님의 權威의 代行者로서 兒童學生들의 生이 하나님의 啓示된 眞理에 인도되어 바르게 영위되도록 그들에게 信仰과 知性과 感性의 內的 訓練과 아울러, 행위기능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制約도 행사해야 한다. 이는 信仰的, 知的, 情的 研磨와 함께 行動 規範도 바로 잡아 줌으로써 아동학생들로 하여금 신리에 의한 內的 紀綱(inward discipline)도 세우도록 하려는 것이다. 갈빈主義 教育에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擧揚키 위해서는 訓戒-紀綱도 불가결한 요소로 강조되는 바, 이 discipline은 authority와 함께 兒童學生들의 성숙수준에 부합하도록 教育過程에서 사랑으로 행사되지 않으면 안된다. Henry Schultz가 말하듯이* (Schultz, 1953, p 114) 教師는 권위의 행사로 兒童學生을 解放시켜 신리에 보다 더 効率的으로 적응케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教師는 學生으로 하여금 眞理를 合理的으로 흡수, 소화하여 生의 全 領域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機能을 履行함에 있어 교사는 聖經이나 關聯敎科는 물론 세속학문영역에도 一般恩寵原理에 따라 啓示된 眞理와 아울러, 이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일반 情報, 知識을 바르게 이해하여 가장 効率的인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전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教師는 兒童學生의 本性和 行動을 잘 알아야 하고 그의 性品과 才能이 자라 성숙해 가는 발달의 원리와 함께 學習이 이루어지는 원리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教師의 機能은 그에게 眞理와 兒童學生과 敎授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

教師는 學生으로 하여금 眞理를 사랑할 수 있도록 鼓舞해야 한다. 모든 眞理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敎育의 과정에 있어서 眞理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요소도 당장의 어떠한 功利的 目的의 달성을 위해 盲目的으로 操作되거나 이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自身에게 奉獻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반영하는 眞理에 대한 奉獻도 요구하시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곧 바로 學生의 진리에 대한 태도에 影響을 끼친다. 따라서 教師는 學生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眞理를 학생들이 보는 자신의 생활속에 그대로 具現치 않으면 안된다. 또한, 教師는 聖經的 照明에서 자신의 敎科領域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면, 歷史敎師는 학생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羅列的 설명만으로 자신의 役割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基督者 敎師는 학생들에게 歷史를 가르침에 있어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背後에서 役事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世界와 人類의 創造者로서 豫定가운데 세계와 인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攝理를 발견케 하여 歷史의 의미와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眞理를 배워 깨닫도록 하고, 歷史에 반영되는 하나님의 榮光에 머리를 숙이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自然과 人間歷史속에 나타나는 眞理와 이 自然, 人間歷史 및 그 속에 나타나는 신리의 創造主와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이 진리와 창조주에게 봉헌함으로써 教師는 자신이 學生들에게 가르치는 敎科內容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할 수 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와 이의 創造主를 사랑하도록 鼓舞될 수 있는 것이다.

* By the exercise of that authority he(the teacher) liberates the pupil, that is, he enables him to function more freely by virtue of his making greater adjustments to the facts—to truth' (Schultz, Henry 'Authority a Liberating Force in Education', in Jaarsma, 1953, p 114)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職責을 바르게 遂行하는데 필요한 教師의 資質은 무엇인가? 基督人이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教師의 뜨거운 信仰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별도의 論議를 省略하기로 하고, 우선 첫째로 생각해야 할 必須要素로 教師職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대해 거론코자 한다. 칼빈에 지대한 影響을 끼친 바 있는 Augustine은 “the chief concern of the teacher is not the organization of subject matter, not the method of teaching, but to take delight in teaching All other desirable qualities of the teacher follow naturally from a keen sense of duty, tact, and patience”(Augustine, cited in H Vander Zweep, G Wielenga and J W Hulst, “The Teacher and Vitalized Teaching”, in Jaarsma, 1953, p 423)

라고 教師의 教師職에 대한 관심을 역설하고 있다. 基督教教師는 자신의 職務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사자로 보기 때문에 필연코 이 직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직책을 天職으로 알고 여기에 畢生, 渾身の精力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칼빈主義 眞理觀, 文化觀의 입장에서 類推해 볼 때 교사가 담당하는 영역은 그것이 어떠한 교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創造의 攝理가 나타나(revealed) 깃들어 있는 自然世界와 人間의 事象들과 歷史的인 사건들을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바른 理解는 참된 세계관, 人間觀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師에게는 자신이 맡은 領域을 완전히 터득(master)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서는 이를 學生들에게 効率的으로 전할 수 있는 教授技術에 대한 완전한 터득(mastery of the art of teaching)의 責任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教師는 專門人으로서의 필요한 일반적인 知識이나 機能의 터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한 研究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學問과 科學, 技術의 새로운 情報과 idea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밝혀지는 새로운 진리들을 獲得하여 學生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知慧와 은혜중에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Hylkema의 다음 말은 깊이 음미되어지는 바이다:

“The professional attitude presupposes that the teacher is master of his subject and is master of the art of teaching it But it also requires that the teacher is diligently and perpetually studying to gather new ideas The teacher himself must grow in wisdom and grace under his hands He must bring to his class the contagion of fresh enthusiasm that is born of newly discovered truths and ideals, if he would inculcate into his pupils a reverence and love for the subject he teaches (Hylkema, G W, “The Great Office of the Teacher”. in Jaarsma, 1953, p 417)

教師가 갖추어야 할 둘째 資質은 그가 가르치고 있는 兒童學生들의 사람됨(identity, personality)과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行動과 행동의 法則에 대한 바른 理解力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詳論할 것이므로 이의 논의를 생략하고, 여기서는 다만 兒童學生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능케 해 주는 教師의 兒童에 대한 관심과 이에서 비롯되는 사랑에 대해 몇마디 언급코자 한다. 여기서 한가지 밝히고 지나갈 것은 兒童學生에 대한 理解와 그에 대한 관



심, 사랑, 이 양자는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이다.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없이 그에 대한 참된 이해는 있을 수 없고, 또 올바른 이해없이 그에 대한 참된 관심이나 사랑의 傾注도 있을 수 없다. 兒童에 대한 참된 이해는 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고, 깊은 관심과 사랑은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條件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教師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兒童學生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傾注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께 대한 사랑과 奉獻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진리를 傳授받게 되는 당신의 形像(을 지닌 者)인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헌도 요구하신다. 학생들에 대한 참된 이해없이 教授行爲는 단순한 기계적인 것으로 轉落하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 맡겨진 아동들은 단순한 生物-社會的 有機體(bio-social organism)도, 實驗室에 있는 原料도, 集團속에 흡수된 중립적 實體도 아니다. 그들은 精神的, 心理的, 社會的 屬性들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人間(person)이요 靈魂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創造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形像(을 지닌 者)인 것이다. 그들은 身體的으로, 精神的으로, 道德的으로, 그리고 靈的으로, 즉 하나의 全人(whole person)으로 實存하고, 생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그의 과거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可能性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理解한다. 教師의 兒童學生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사랑의 程度는 교사와 아동학생사이의 바람직한 關係의 정도를 결정하고, 미침내는 教育의 成功程度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교사는 자신에게 賦與된 權威를 兒童學生들에 대한 깊은, 理解와 關心과 사랑으로 찬 마음(heart)으로부터 행사할 때 비로소 그들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해를 촉구하는 Hylkema의 勸告에 귀를 기울여 보자 :

“Honor the child, honor God’s laws operative in him, honor God’s purpose, and hold even in the most ragged youngsters the eternal possibilities that lie enwrapped in his soul and only in this way God honor us and deem us fit and worthy to lead that child in the green pastures and to open for him the way to a fuller life”(Hylkema, Ibid, p 419)

聖經에 바탕을 둔 Calvinism에 示唆된 教育의 規範에서 볼 때, 教師와 學生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관계이다. 兩者사이에는 內的, 本質的, 價值論的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다만 機能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教育現場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이 兩者가 각기 지니고 있는 본연의 地位와 役割은 어니까지나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教師는 어디까지나 指導者로 머물러 있어야 하고, 자신과 학생들사이에 있는 일정한 거리를 부당하게 좁히거나 상실하거나 함이 없이 자신의 所信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Zweep, Wislenga, and Hulst, “The Teacher and Vitalized Teaching”, in Jaarsma, 1953, p 423). 教師의 이러한 地位와 役割이 바르게 자각되고 履行될 때 학생과의 정당한 관계가 형성, 지속되어 教育의 바람직한 풍토는 조성될 것이요, 이러한 때 教育은 비로소 그 고유한 성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II-1. 學生觀

人間的 本性에 대해 個人이 갖는 견해나 입장이 그의 教育哲學의 입장이나 이에 의해 전개되는 教育過程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Jaarsma의 “All great pedagogical movements proce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mplicitly or explicitly from a general conception of the nature of man”(Jaarsma, 1935, p 137)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雄辯으로 설파하고 있다.

우선 생각할 것은,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 學生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이다. 教育에 있어서 학생이 차지하는 위치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學生은 教育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는 中心體이다. 現代教育, 특히 進歩主義教育에 있어서는 그의 필요나 경험이나 生의 狀況(life situation)이라는 점에서 아동만이 모든 教育行爲와 過程에서 유일한 중심체이다. 이리하여 現代教育은 어느 의미에서는 兒童中心教育(child-centered education)이라는 代名詞로 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改革主義의 입장, 아니 聖經의 입장에 있어서는 教育을 포함하여 人間이 영위하는 모든 企業이나 行爲過程에서 人間이 중심일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비록 人間 個人에 의해 영위된다 할지라도 人間 自體와 인간이 누리고 經營하는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홀로 支配하시기 때문이라는 대전제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聖經이 가르치는 대로 人間-兒童은 自然進化의 產物도, 단순한 社會-生物學的인 有機體도 아니다. 兒童-人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의 주권적 지배하에서만 자신의 生과 行爲를 영위해 가는 것이다. 나면서 부터 더럽혀져 있고, 비뚤어진 本性을 지닌 인간은 그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自然性向에 따라 자라서 성숙하고 養育될 때,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의 自然性的 原理에 따라 아동을 養育(教育)할 때, 이러한 人間中心教育에서 완전한 基督教的人格의 형성이라고 하는 教育의 窮局的 目的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참된 教育은 인간이, 아동이 중심이 될 수는 없고, 인간과 세상만사를 創造하시고 지배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Jaarsma는 改革主義의 입장에서 결쳐질 教育의 이러한 성격을 다음과 같은 말로 규정짓고 있다:

“Not man, but the Personal God as He reveals Himself in absolute truth, is the center of the educative process as He is of life itself Man is not the measure of this truth, but it is His standard It gives education a firm foundation, an unchangeable norm, an all-ruling principle and a lofty and inspiring ideal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in education find their point of coordination in it”(Jaarsma, Ibid, p 135)

★ 本 章의 主題와 關聯하여 拙稿 “教育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高神大 論文集 第10輯 p 111-138, 특히 p 116-121을 參照바람

나아가서 Jaarsma는 人間을 중심으로 하는 現代教育을 人間 그에게 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발한다: “Modern education which makes man the center, norm and objective of education, commits evil against man himself”(Ibid, p 134)

聖經은 人間-兒童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罪에 차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本質上 震怒의 子女”(엡2:3)라고 인간의 저주스러운 본성을 慨歎하고 있고, 創世記 記者는 “……어려서 부터 악함이라”(창8:21)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詩篇記者는 罪에 찬 人間性의 근원을 보다 더 여실히 描寫하고 있다(“내가 罪惡中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시51:5). 聖經의 人間本性에 대한 이러한 묘사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말하면 出生前에 이미 罪의 사슬에 얽매어 있고, 그 생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震怒의 詛呪下에 놓여 있다고 하는 宿命的인 人間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兒童에게는 教育을 포함한 그 무엇도 施與될 수 없는 절망만이 가로막혀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救贖받기 이전의 상태의 兒童-人間에 대해 聖經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는 人間(의 本性和 運命)에 대해 聖經이 말하고 있는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十字架上的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러한 구속의 희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다(요3:16). 바울은 구속받은 자녀들의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거룩하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고전7:14)* 칼빈의 人間論의 성격을 정리하면서 언급했듯이, 聖經이 가르치는 兒童(人間)의 본성에는 비관적인 면과 낙관적인 면이 共存한다. 한 측면에서 볼 때, 兒童(人間)은 그리스도를 믿어 罪셋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震怒의 저주를 받도록 宿命지워져 있는 絶望的 存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義로운 子女가 되어 구속의 福樂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聖經이 가르치고 있는 人間性에 대한 樂觀的인 다른 한 측면인 것이다. 여기엔 中間立場은 없다. 人間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되든지, 두 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中道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聖經이 兒童(人間)의 本性에 대해 밝히고 있는 敎訓인 것이다.

이러한 聖經的 兒童觀은 教育과 관련하여 어떠한 含蓄的 意味(implication)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대로 이러한 眞理야 말로 兒童-人間에게 教育이 가해질 수 있는 根據가 되는 것이다. 만약 아동이 나면서부터 일생동안 罪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宿命에만 묶여 있다면 그에게 教育을 包含하여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兒童-人間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러므로 여기에 비로소 教育을 포함한 그에 대한 작용이 의미가 있고 효용이 있는 것이다.

教育은 聖經的 立場에서 볼 때 窮局的으로 그리스도와의 聯合을 통해서 全人으로서의 人間을 새롭게 하고 啓發, 鍊鍛하여 그의 생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意圖的 作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教育(作用)은 인간이 죄로 인한 宿命的 詛呪의 죄사슬에서 풀리는 源泉的 自由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는 窮局的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恩寵에 대한 信仰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子女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기뻐하리라 ”

칼빈主義者는 兒童學生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인식하고 믿는다. 이는 바로 兒童學生에게는 다른 要素들과 함께 合理的, 道德的, 靈的 屬性이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에게는 본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성스러움의 本性이 있음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그에게는 文化를 創造, 영위하고 社會共同體를 이루어 공의를 실현하며, 世界와 人類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敬拜하고,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워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능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타락의 결과 理性이 退化하여 知的으로 愚昧해졌고, 道德性이 痲痺되어 社會的으로 混沌해졌고, 靈이 枯渴하여 宗教的으로 腐敗하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형상은 人間에게서 완전히 絶滅되지는 않아 聖靈의 感動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人間的 努力(教育을 포함한)으로 퇴화된 理性과 마비된 道德性과 고갈된 靈性이 회복되고 鍛鍊되어 人間은 땅을 征服 支配하고, 公義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敬拜하면서 天國市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兒童學生(人間)의 生은 아주 존귀한 것이어서 높이 尊重되지 않으면 안된다. 教師는 학생의 필요를 알아 채워주고, 결점을 보완하여 그에게 物理的, 精神的 有益을 도모해 주도록 힘써야 한다.

學生은 合理的 存在(rational being)로서 생각하고 探究할 책임을 지닌 자이다. 그는 항상 情報를 받아 들이기만 하는 容器일 수는 없다. 그는 思考하고 探究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教師는 그에게 되도록 많은 知的 刺戟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探究하고 學習할 수 있는 與件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教授-學習의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은 주로 教師(父母, 學校)가 져야 하는 것이긴 하나 學習者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분담되지 않으면 안된다. Calvin도 教育過程에 있어서의 學習者의 책임을 아주 중히 여기고 있는바, 이는 Geneva大學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學問活動에 適用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 한 예로, 學生의 進級要件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

Each year three weeks before the first day of May, one of the public professors.....shall propose in the Common Hall to all the students of the college a theme in French, and they being arranged by order of their classes shall write under his direction each one according to his ability That having been done, they shall retire to their classes and immediately, without looking in the book, shall translate into Latin within five hours that which they have been given each one by himself and without any help (Calvin, 1955 p.30)

人間이 하나님의 形像대로 지음을 받았다 함은 그에게 道德性이 있음을 의미한다. 人間의 道德性은 그의 社會的 關係에서만 의미를 갖는 바, 그것은 個人 하나만의 독립된 生의 형태에서는 道德이 필요없고 또 성립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人間에게 道德性이 있다는 것은 필연코 그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社會共同體를 떠나서는 그는 살 수 없기 때문에 道德은 人間生活에 必須不可缺한 것이다. 教育은 兒童의 道德性의 啓導로 이룩되는 社會適應性의 涵養을 하나의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道德的 행위는 자유를 선제로 한다. 강요된 행동에 대해서 개인은 道德的 責

任을 질 수 없고, 자유가 보장되는 곳엔 반드시 道德的 責任이 문제되는 것이다. 道德은 自由를 전제로 하고 자유는 도덕을 條件으로 하는 것이다. 教育의 過程에 있어서 兒童은 機械가 아니다. 그에게는 思考의 自由, 探究의 自由가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의 자유가 있으며, 이 자유에는 반드시 責任이 따르는 것이다. 兒童의 知的 探究는 그에 의해 자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聖經이 가르치는 眞理의 照明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칼빈主義 教師는 학생에게 모든 영역에 걸쳐 넓고, 그리고 깊게 진리를 탐구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學生에게 모든 眞理의 根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터득한 眞理는 생의 現場에서 그대로 실행하여 이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을 가르친다.

人間이 하나님의 形像대로 지음을 받았다 함은 그에게 靈(Spirit)과 이 靈에 의한 全人으로서의 統一性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教育作用의 統一性과도 상통한다. Berkhof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支持해 준다 :

“The soul is a unit and education is a unitary process, aiming at the development of man’s essential nature into a harmonious life, full and rich and beautiful”(Berkhof, L. “Being Reformed in our attitude to the Christian School”, in Jaarsma 1953 p 82)

靈의 統一性과 관계되는 教育過程의 통일성에 대해 Berkhof는 이렇게 말한다 :

“the training of the head and of the heart go together and in both the fundamental fact that the child is the image-bearer of God must be a determining factor”(Ibid p 81)

兒童의 統一의 特性은 또한 그의 人間性의 本質的 構成要素에서 볼 수 있다. 칼빈은 人間이 肉과 魂(soul)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聖經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순한 機械的 二分法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칼빈은 보다 고귀한 部分(the nobler part)으로서의 魂과 낮은 部分(the lower part)으로서의 肉을 엄밀히 구분했지만, 그러면서도 兩者는 서로 補完的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고 人間存在를 하나의 全人으로서 把握했던 것이다. 이는 教育의 과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教育은 언제나 全人에 대한 작용인 것이다. 教育은 항상 知, 情, 意 등 精神機能과 肉體의 機能과 社會的, 道德的 機能과 나아가서는 靈的 機能, 다시 말하면 全人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Jaarsma는 다음 말로써 教育의 이러한 성격을 밝히고 있다

“We cannot single out, or abstract a certain function or dimension for forming without its being affected by and affecting other functions or dimensions We cannot teach the intellect or mind, or train the intellect as an entity in the person Intellectual training involves emotional attitudes, physiological functions, and social relationships…… We always teach a child in his organic unity and in the unity or relationship of life We teach a whole-child-in-life As rational-moral-esthetic-free-responsible being he functions mentally and physiologically in the dimension of life A child’s learning involves all of these Our teaching is directed to the whole child”(Jaarsma, 1959, p 53)

人間을 形成하는 모든 精神, 生物, 社會的 要素들(psycho-bio-social constituents of man)은 靈(spirit 또는 heart)에 의해 하나의 全人으로서 統合되어 있는 것으로 칼빈主義 哲學者들은

보고 있다.* 精神的, 心理學的, 生物學的, 社會學的 諸 要素들로 형성된 人間을 全人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spirit요 heart이다. 따라서 全人을 대상으로 하는 教育이 노려야 할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靈(spirit)이요 마음(heart)이다. 사람의 靈-마음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행동의 출처이다. 가장 深奧하고 窮局的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요, 마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다(Spier, 1950, p 15) 마음은 人間의 모든 思考와 情緒와 行動과 生 전체를 결정하는 근원이다. 教育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靈의 變革(重生)을 통해서 人間性과, 行動과 生 전체를 새롭게 하여 그로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 物質世界와 同類人間들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류에게 복지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人格者를 형성하는 인간의 意圖的 行爲, 過程인 것이다.*

IV. 結 語

칼빈은 偉大한 宗教改革者로서, 改新敎神學者로서, 그리고 包括的인 基督敎思想家로서 學問이나 思想一般에는 물론, 文化一般에도 甚大한 影響을 끼친 歷史의 人物이다. 이러한 칼빈의 多方面에 걸친 功勳은 후세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繼承되어 발전되어 왔다. 칼빈의 思想은 여러 學問領域에 波及的 含蓄性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教育의 領域에도 이러한 影響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教育(學)의 영역에서 말할 때 칼빈은 비록 直接的으로, 그리고 意圖的으로 教育의 諸問題에 대해 體系的인 서술을 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의 思想, 특히 그의 世界觀, 人間觀은 教育의 哲學的 基礎定立에 많은 示唆를 제공해 주었고, 특히 그를 따르는 많은 學者들에 의해 教育의 哲學的 原理로서 한층 심화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본 論文에서 칼빈의 실재에 대한 견해를 考察함으로써 그의 世界觀이 어떠한 것인가와 아울러 그의 人間觀의 大要를 살펴 보았고, 이러한 世界觀, 人間觀을 토대로 示唆된 칼빈 자신의 教育의 主要問題에 대한 견해와, 그를 추종하는 학사들의 教育의 주된 關心事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研究는 아주 광범하게 展開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檢討의 範圍를 教育의 基本概念인 教育의 目的과 教育을 직접 管掌하고 또

* 例컨대, Dooyeweerd H 1972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pp 179-180 189 Waterink J 1954. *Basic Concept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 44 De Graaff A,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p 91, Jaarsma C 1959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 p 42 72

* 본 1 題에 대해서는 拙稿 “教育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高神大 論文輯 第10輯 p 111-138 특히 pp 121-124를 參考하기 바람



이 教育의 대상인 教師와 學生에 대한 考察에 局限시켰다. 본 論文에서 우리는 Calvinism에 입각한, 아니 聖經原理에 입각한 教育의 哲學的 基礎定立에 기둥 하나 건립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극히 미약한 作業을 시도하려 했음을 밝히며, 앞으로 이러한 努力이 계속 전개되어 聖經原理에 입각한 하나의 教育學이 체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參考文獻

- Berkhof, L , 1953, “Being Reformed in Our Attitude to the Christian School”,in Jaarsma,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Byrne, H W , 1977,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rd, Michigan, Mott Media
- Calvin, J , 1958,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Tracts and Treaties*, trans by Henry Beveridge. Vol II ,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 1949, *Commentaries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trans by Rev John Owe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 1948,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 by Rev John King, Vol I,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 1953,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 by G A Taylor, Durham, Duke University
- , 1967,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 T McNeill, trans by F L Battles, Vol XX and XXI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 1955,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VIII, trans by W Stanford Reid, November
- De Graaff, A , 1968,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utley, New Jersey, The Graig Press
- Dooyeweerd, H , 1972,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Nutley, New Jersey, The Graig Press
- Hylkema, G W , 1953, “The Great Office of the Teacher”, in Jaarsma,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Jaarsma, C , 1935,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 1959,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McNeil, John T .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eter, H Henry, 1960,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 Schultz, Henry, 1959, "Authority, a Liberating Force in Education", in Jaarsma,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Spier, J M, 1950,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trans by D H Freeman,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 1953, *What is Calvinistic Philosophy?* trans by Fred H Kloost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Taylor, G Aiken, 1953, "John Calvin, the Teacher, The Correlation Between Instruction and Nurture Within Calvin's Concept of Commun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Durham
- Van der Walt, B J, 1978, *Heartbeat*, Potchefstroom, Pro Rege
- Van Til C, 1977, *Essays on Christian Education*,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Warfield, B B, 1956,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Waterink, J 1954, *Basic Concept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963,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 Zweep, H Vander, Wielenga, G, and Hulst, J W, 1953, "The Teacher and Vitalized Teaching", in Jaarsma,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